

광야에서 하나님을 들음 메세지 4 : 달리는 신의 말씀을 들음 HEARING GOD IN THE WILDERNESS: LISTENING TO GOD ON THE RUN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들었는지, 나아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들었는지 살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호한 성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녀가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녀는 종종 그녀가 신의 이야기에서 사기꾼 또는 침입자 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갈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날 수있는 일에 대한 놀라운 예입니다. 이제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내 노예와 함께 자십시오. 아마 그녀를 통해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갈에 대한 사라의 이름 : 나의 노예 3 아브람은 사라가 말한 것에 동의했습니다. 3 그래서 아브람이 가나안에서 10년을 살자 그의 아내 사라는 이집트 노예 하갈을 데리고 그녀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4 그는 하갈과 함께 잤고 그녀는 잉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 한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여주인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5 사라가 아브람에게 말 하였다. “내가 겪고있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품에 내 노예를 안 았고, 이제 그녀가 임신 한 것을 알았으니, 그녀는 나를 경멸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삶과 함께 탈출하기를 바라고 광야로 달려 갑니다. 그녀가 받는 더 큰 약속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녀를 들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녀는 혼자자 아닙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광야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는 생각은 수동적이거나 정적 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고통 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심과 거짓말, 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한 거짓말을 보고 씨름하는 이 과정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발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며칠 후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그를 알아봅니다. 이전에 메시아와의 모든 인간 상호 작용에는 천사의 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가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감싸인 아기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기를 팔에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권자 이신 주님, 약속 한대로 이제 평화롭게 종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은 너희가 모든 민족 앞에서 예비한 너희 구원을 보았다. 이방인에게 계시를 위한 빛, 너희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누가 복음 2 : 29-32

자유와 온전함 속에서 그녀는 결코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신을 들음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 납니다. 그것은 그 의미에서 놀라운 일이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13 그녀는 그녀에게 “너는 나를 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여호와께 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14 그래서 우물을 BEER LAHAI ROITA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KADESH와 BERED 사이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15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은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6 아브람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여든 여섯 살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인이고 그들은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RA-태양의 신, HORACE, 복수의 신, HATHOR 모성의 여신-그러나 하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컸습니다-그는 제우스가 그리스인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신, 최고 개, 왕의 왕의 보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AMAN-RA-THE HIDDEN ONE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이 새로운 신의 이름을 지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그에 대해 확실히 아는 유일한 것은 나를 보는 신입니다. 창세기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00 년 후에 기록되었지만 우물은 여전히 알려져 있으며 하갈의 생애에서 이 사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하갈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구걸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오-이스마엘은 그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직접 광야에서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그녀가 알려진 유일한 레시피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보고, 알려지고, 사랑 받고 ... 하나님의 목적에 관여합니다.